

언제나 찬란했던 당신에게

말하기*그리기 윤안석 틀기*쓰기 김수정, 천유정



emc 주민참여예산사업
우리마을백서 '베스트셀러'

01

윤안석

예천 촌놈, 조장이 되다.



이삿짐보다 무거운 것은 떠나는 마음이었다.

이십 대의 젊은 패기로 경북 예천의 정든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올 때, 내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4만 원이었다. 낫선 타지에 무작정 발을 들이는 게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. 하지만, 마냥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었다.

첫 직장 생활은 무척이나 재미있었다. 그 때까지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,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. 하지만,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져 갔다. 그리고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갔다. 그리고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갔다. 그리고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갔다.

이 고집병에 부딪히려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.

연말 결산이 끝나고 나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.

